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기획공모 '다시, 꿈다락' 총평-

심사위원 서명 김보성 (인) 

서명 가르비 (인) 

서명 전지영 (인) 

##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공모] '다시, 꿈다락' 심사 총평

다시 꿈다락 기획공모사업은 지역 곳곳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나 지원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구상이나 프로그램 구성 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서술하는 표현이 서툴러서 심사과정에서 잠재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에게 다시 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심사과정을 컨설팅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교육단체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지원사업이다.

총 19개의 단체가 서류에 응모하였고 그 중 9개 단체를 서류전형으로 선발하여 다시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5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면접과정에서 그간 다른 여러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서류탈락과 면접탈락의 구체적 이유를 몰랐지만 알아볼 수도 없어 답답했던 경험을 토로하였다.

이 지원사업의 취지는 지원사업에 공모지원을 했으나 선정이 되지 못한 단체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에 자생하는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의 전문성과 활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사업 내용이 좋더라도 처음 지원하는 단체는 배제하였다. 본래의 지원사업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최종 선정된 5개의 프로그램 운영 주체들에게는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제안된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지원사업의 팔길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운영 주체들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발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면접 심사가 최종 탈락한 4개 단체 참가들에게 향후 보완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심사형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의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 심의위원 (가나다순)

김보성 (성공회대 외래교수)

김정이 (월곶예술공판장 대표)

전지영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